

농담 같은 진담, 진담 같은 농담

April, 2017 | 박활성

page 1 of 6

ARTIST
안규철

Ahn Gyu Chul

WHEN THE SKY IS GRAY.
RAINY WEATHER. SAD MUSIC.
BAD WEATHER. ON MONDAY.
SOMEONE'S DEATH.
DEPRESSING MOVIE. THE BILL.
HOPELESS SITUATION.
STRESS OF EVERYDAY.
BREAK UP WITH GIRLFRIEND.
FINANCIAL WORRIES.
ILLNESS. DIP OUT IN THE EXAM.
LOSING JOB. IF YOU GO AWAY.
NOT GETTING THE PROMOTION.
BUSINESS PROBLEM.
PERSONAL PROBLEM



농담 같은 진담, 진담 같은 농담

/ 박활성

작가 안규철은 일상과 사물, 언어에 대한 고유의 사색과 관찰을 작품에 담아온 개념미술가다. 최근 그의 신작 25점을 소개하는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 (2. 21~3. 31 국제갤러리)이 열렸다. 지난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문학적 서사가 중심을 이룬 작업 전반을 보여줬다면, 2년 만에 열린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구체적인 사물의 상태와 물성에 주목해 '조각 전공'이라는 그의 기반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평범한 사물을 관찰하고 그 기능과 성격을 전복시켜 유희적 상상으로 재맥락화하는 그의 작업은 미술과 언어, 일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마치 우리에게 진지하고도 우스운 '농담'을 던지는 것처럼... /

“몇 년 전 하버드대학교 무향실에 들어간 나는 두 가지 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높은 소리, 하나는 낮은 소리였다. 담당 엔지니어에게 설명하자 그는 높은 소리는 내 신경계가 작용하는 소리, 낮은 소리는 내 혈액이 순환하는 소리라고 알려줬다. 죽을 때까지 소리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죽은 후에도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음악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존 케이지¹⁾

소리가 있는 한 음악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미술은 어떤가? 그림자가 있는 한 미술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 현대미술은 모르겠지만 미술은 그렇지도. 그런데 오늘날 미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미술가의 미래, 혹은 당장 얼마 남지 않은 5월의 미래를 걱정하기에도 충분히 바쁜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히든 트랙>전을 찾은 관람객은 저만치 허공에 매달린 사람과 마주쳐야 했다. 풍선 하나에 의지해 영거주층한 자세로 떠있는 사람은 작가 안규철이다. 물론 실제 작가는 아니고 그를 본떠 만든 이 설치조각 옆에는 “THE END”라는 파란색 글자가 입체적으로 과장되어 튀어나와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한 작가의 것임을 파악하면, 그리고 그 전시가 50대 이상의 중견작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디 당신의 숨겨둔 한 수(히든 트랙)를 꺼내보시라”는 기획이었음을 생각하면 <끝>(2012)이라는 말은 허공에 매달려 <불완전한 비행>(2012)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선고(혹은 질문)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다.²⁾ 한편 그렇지 않은 관람객에게는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끝났으니 나가라고 깽판 치는 작품이었던지도 모른다. (때론 사람들은 깽판을 기대하며 미술관에 오기도 한다.) 안규철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아마 이 작품이 포함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나에게 그의 회고전에 들어갈 작품을 선정하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작품이다. 물론 작가가 좋아할지는 모를 일이고, (전통적 의미의) 회고전을 치를지는 더더욱 미지수지만 말이다.

실없는 농담의 자리에 숨은 진실?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취하는 미술로서의 제스처 때문이다. 또한, 인생의 갈래마다 쉽지 않은 선택을 내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망하는



안규철 / 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조소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 학부 및 연구과정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국제갤러리(201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5), 하이트컬렉션(2014), 서울 과테인스티튜트(2013), 로망갤러리(2004) 등에서 개인전 개최, <달의 번주곡>(백남준아트센터 2014), 광주비엔날레(2012), <한국미술-여백의 발견>(삼성미술관 리움 2007) 등 참여, 제19회 김세중조각상 수상.

농담 같은 진담, 진담 같은 농담

/ 박활성

작가 안규철은 일상과 사물, 언어에 대한 고유의 사색과 관찰을 작품에 담아온 개념미술가다. 최근 그의 신작 25점을 소개하는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 (2. 21~3. 31 국제갤러리)이 열렸다. 지난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문학적 서사가 중심을 이룬 작업 전반을 보여줬다면, 2년 만에 열린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구체적인 사물의 상태와 물성에 주목해 '조각 전공'이라는 그의 기반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평범한 사물을 관찰하고 그 기능과 성격을 전복시켜 유희적 상상으로 재맥락화하는 그의 작업은 미술과 언어, 일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마치 우리에게 진지하고도 우스운 '농담'을 던지는 것처럼... /

“몇 년 전 하버드대학교 무형실에 들어간 나는 두 가지 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높은 소리, 하나는 낮은 소리였다. 담당 엔지니어에게 설명하자 그는 높은 소리는 내 신경계가 작용하는 소리, 낮은 소리는 내 혈액이 순환하는 소리라고 알려줬다. 죽을 때까지 소리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죽은 후에도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음악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존 케이지¹⁾

소리가 있는 한 음악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미술은 어떤가? 그림자가 있는 한 미술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 현대미술은 모르겠지만 미술은 그렇지도. 그런데 오늘날 미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미술가의 미래, 혹은 당장 얼마 남지 않은 5월의 미래를 걱정하기에도 충분히 바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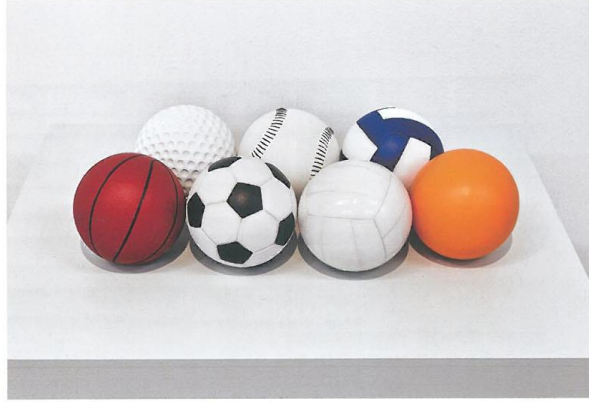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히든 트랙>전을 찾은 관람객은 저만치 허공에 매달린 사람과 마주쳐야 했다. 풍선 하나에 의지해 엉거주춤한 자세로 떠있는 사람은 작가 안규철이다. 물론 실제 작가는 아니고 그를 본떠 만든 이 설치조각 옆에는 “THE END라는 파란색 글자가 입체적으로 과장되어 튀어나와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한 작가의 것임을 파악하면, 그리고 그 전시가 50대 이상의 중견작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디 당신의 숨겨둔 한 수(히든 트랙)를 꺼내보시라”는 기획이었음을 생각하면 <끝>(2012)이라는 말은 허공에 매달려 <불완전한 비행>(2012)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선고(혹은 질문)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다.²⁾ 한편 그렇지 않은 관람객에게는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끝났으니 나가라고 깽판 치는 작품이었는데도 모른다. (때론 사람들은 깽판을 기대하며 미술관에 오기도 한다.) 안규철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아마 이 작품이 포함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나에게 그의 회고전에 들어갈 작품을 선정하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작품이다. 물론 작가가 좋아할지는 모를 일이고, (전통적 의미의) 회고전을 치를지는 더더욱 미지수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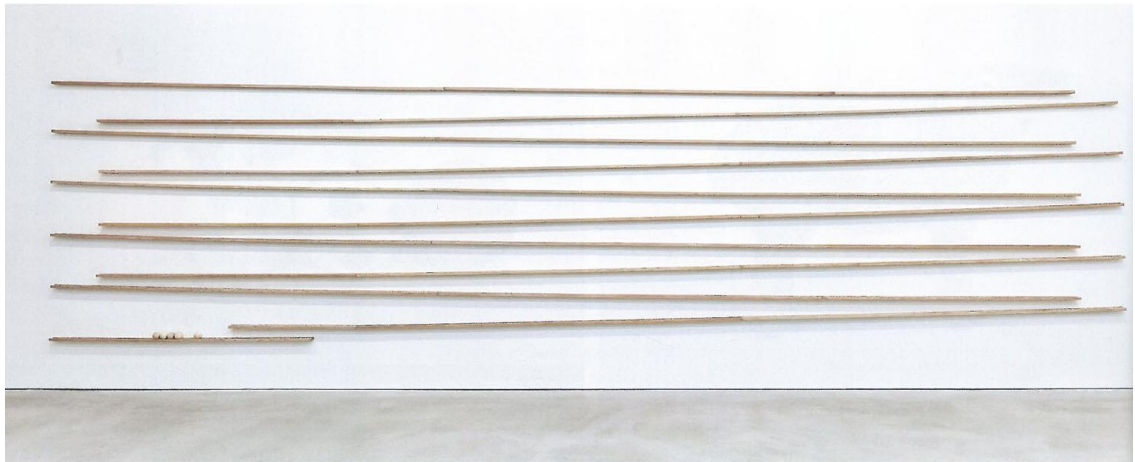
실없는 농담의 자리에 숨은 진실?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취하는 미술로서의 제스처 때문이다. 또한, 인생의 갈래마다 쉽지 않은 선택을 내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망하는



안규철 / 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조소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 학부 및 연구과정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국제갤러리(201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5), 하이트컬렉션(2014), 서울 과테인스티튜트(2013), 로망갤러리(2004) 등에서 개인전 개최. <달의 번주파>(백남준아트센터 2014), 광주비엔날레(2012), <한국미술-어백의 발견>(삼성미술관 리움 2007) 등 참여. 제19회 김세중조각상 수상.





위 · (머무는 시간) 나무레일, 나무공 가변크기
2017. 국제갤러리 전시 전경
아래 · (두 벌의 스웨터) 탈싱, 옷걸이 가변크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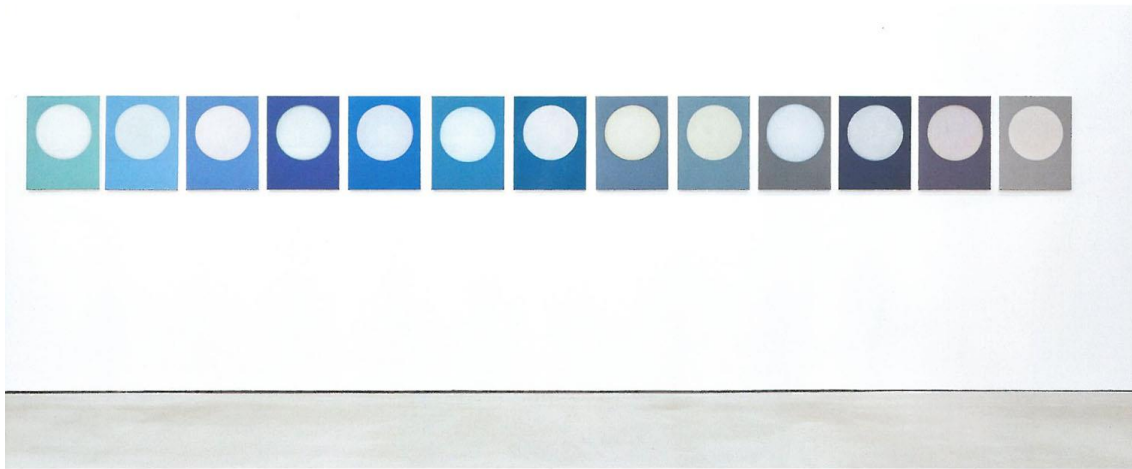
현존을 성실하게 필사한” 결과물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쳐두고 무얼 쓸까 그럴까 고민하던 차에, 그러다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멍하니 앉아있던 차에 창밖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전날 비가 제법 온 탓인지 뒷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소리였다. 그는 이 소리를 들으며 그러한 과정,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강으로 가고 중국에는 호수에 괴이거나 바다로 가는, 혹은 땅에 스며들어 어딘가에서 샘으로 솟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해진 레일을 따라 끝을 향하는 인생을 떠올렸다. 꽤 허무한 얘기다. 그러나 의외로 중독성이 있는 약 3분가량의 이 심심한 운동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실제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때로 공은 레일 바깥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공들 역시 예외 없이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공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구른다. 빛은 거울들이 정해진 각도로 공간을 가로지른다. 중력과 광학적 원리가 그들을 움직이는 동안 그것들은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늘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⁸⁾

말하기의 더하기와 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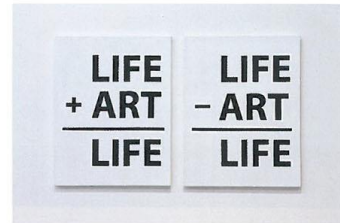
할 클레멘트(Hal Clement)의 소설 《중력의 임무(Mission of Gravity)》(1953)는 백조자리 61번에 위치한 메스클린 행성에서 지구인과 외계 생명체가 함께 벌이는 모험을 그렸다. 천문학과 화학을 전공한 클레멘트는 하드 SF소설의 대가답게 행성의 직경, 중력, 대기압 등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와 공정한 게임을 벌인다. 어디 한번 내 소설에서 허점을 발견해보란 듯 말이다.⁹⁾ 다행히도 작가의 작품에는 그런 복잡한 논리나 수식이 필요 없다. 극지방의 중력이 700g에 달하는, 거대한 팬케이크처럼 생긴 메스클린 행성에서와 달리 국제갤러리에



설치된 나무공은 그저 소박한 지구의 중력에 맞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한눈 팔 겨를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숙명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사물들은 오랫동안 숙명에서 시달려왔다. 물고기는 결코 물에 닿지 못하거나(〈먼 곳의 물〉[1991/2007]) 친구를 만날 수 없고(〈아홉 마리 금붕어〉[2015]), 〈그 남자의 가방〉(1993/2004)이나 〈모자〉(1994/2004)는 끝내 진실을 모른 채로 남겨질 것이며, 벽들은 결코 벽을 완성하지 못할 운명이다(〈완성되지 않는 건축〉[2014]). 관람객도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떠나간 그들의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그들이 떠난 곳에서: 바다〉[2012]) 사라진 것들을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다.(〈기억의 벽〉[2015]) 그럼에도 사물들은 꿈을 꾸다. 덩달아 우리도 꿈을 꾸다. 바퀴를 달고 여행하는 꿈, 노가 되어 항해하는 꿈, 언젠가는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2015)에 도달하거나, 〈당신만을 위한 말〉(2004/2017)을 듣게 되는 꿈을 말이다. 5월을 맞이하려면,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그래도 괜찮으려면 우리에게겐 그런 꿈이 필요하다.

안규철은 어떻게? “모호한 선문답이 아닌 정교한 언어로 작업을 규정하려 했고, 그러면서도 논리의 사다리를 버리고 허공으로 날아오르기를 꿈꾸”¹⁰⁾며, 실제로도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날아오르긴 했던 그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꿈을 꾸며 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말하는, 그래서 사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어쩌면 말하기의 끝에 대해 말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거의 필사적으로 말하는”¹¹⁾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미술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이리저리 더하거나 빼보면서 의심하는 한,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괜찮아 보인다.



위 · 〈달을 그리는 법〉 캔버스에 유채
53×41cm(각) 2017
아래 · 〈Life〉 캔버스에 아크릴릭 53×41cm(각)
2017

8) 안규철, 〈당신만을 위한 말〉, 국제갤러리 도록, 2017.
9) “나는 뭔가 모순되는 점이 없나 메스플랜의 거대한 영역 위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몇 달 동안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나는 이 게임에서 더 이상 행보를 둘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내 상상의 결과물에서 어떤 실수든 원하는 만큼 밝혀낼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자, 행운을 빈다. 그리고 그대가 이기든 지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할 클레멘트, 〈중력의 임무〉, 안정의 옮김, 시공사, 1996, p. 326. 한편, 일찍이 작가로서 출사표를 던지며 안규철이 쓴 글에서도 미술가의 삶을 토막에 비유한 “온갖 가능한 미술의 사냥꾼들”과 쫓고 쫓기는 게임이 등장한다. 안규철, 〈그림, 요리, 사냥〉, 〈안규철 1990-1992〉, 생티아트북, 1992.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p. 418에서 재인용.

10) 안규철, 〈나의 작가적 전개 과정에 대해〉(2004), 로댕갤러리 〈49개의 방〉전 직전에는 작가 노트.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p. 287에서 재인용.

11) 정영문, 〈개의 귀〉, 〈오리무중에 이르다〉, 문학동네, 2017, p. 99.